

■ 화순 인스나인 환경디자인팀, 프리울리 대표교수 초청 워크숍

▼ 19일 오전 화순군 (주)인스나인에서 이탈리아 프리울리 모자이크 학교 교수들과 지역작가들이 한국의 전통민화 '일월오봉도'를 모자이크 기법으로 만들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伊 전통 모자이크 기법 남도 예술혼과 만나다

한국작가들과 형형색색 유리조각 18만개 '일월오봉도'에 붙여

“한국의 전통 회화를 이탈리아 모자이크 기법으로 직접 표현해보니 신기하고, 많은 영감을 줍니다.”

19일 오전 화순군 동면 (주)인스나인 환경디자인 연구소에서 열린 '제1회 프리울리 대표교수 초청 모자이크 워크숍'. 프리울리 모자이크 학교의 델라 베도바 에베리나(53) 교수와 데 레오니 크리스티나(33) 교수와 10여 명의 한국 작가들이 손톱보다 작은 유리 조각을 나무판에 붙이고 있었다.

프리울리 모자이크 학교는 지난 1922년 설립됐으며, 전통적인 방식과 소재의 작품부터 현대적인 작품까지 아우르는 전 세계 유일의 모자이크 전문 교육·연구기관이다.

이들은 지난 13일부터 한국의 전통민화 '일월오봉도'를 이탈리아 전통 모자이크 기법으로 만들고 있다. 이탈리아 교수들의 지도로 가로 300cm, 세로 160cm 크기로 제작되며 4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색상의 유리조각 18만 개를 일일이

손으로 깨고 맞춰 붙여야 한다. 쉬는 시간없이 작품을 만들고는 있지만 한 사람이 하루에 가로 10cm, 세로 20cm 크기를 만들기도 빠듯한 고된 작업이다.

“기술적인 것만 따라 하지 말고, 조각 하나하나에 정성을 갖고 붙여야 합니다. 각기 다른 유리 조각들이 조화를 이루고, 거대한 물건을 만들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합니다.”

베도바 에베리나 교수의 조언 한 마디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황인옥(공예)·이종호(회화)·신성주(도예)·이기원(조각)·김원(판화)·이명진(판화)·조사라(회화)·박아름(디자인)·안경미(도예)·유봉순(디자인)씨 등 한국 작가들은 귀를 기울였다.

이기원(49)씨는 “기법은 그리 어렵지 않게 익힐 수 있는데, 시간과 끈기가 들어가는 작업이다”면서도 “몸은 힘들지만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 흥미롭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전통 모자이크 기법과 남도 예술혼



이 만나 21세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예술 모델을 만들어 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한국 작가들의 열정이 대단했다. 이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작품 제작에 몰두하고 있다.

이명진(31)씨도 “취미로 유리조각을 깨기 때문에 똑같은 조각이 없고, 모자이크 표면이 다양하게 연출된다”면서 “이를 판화기법인 실크스크린으로 찍어내기 위해 연구 중이다”고 귀띔했다.

이들이 만드는 작품은 오는 22일 오후 7시 이곳에서 열리는 제작발표회를 통해 공개되며, 열가를 열리는 '2010 서울디자인마당 국내디자

인산업전' '2010 광주건축도시문화제'에도 출품된다.

또 이번 워크숍을 토대로 광주에 프리울리 아시아 분교 설립도 추진되고 있다.

데 레오니 크리스티나 교수는 “이번 행사 관계자·지역 문화기관과 분교 설립을 논의 중에 있다”면서 “광주·전남에 아시아 분교가 들어서면 한국에서 2년 공부를 한 뒤 다시 이탈리아 현지에서 2년을 배워 세계적인 작가로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061-373-992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역·사의 향·기

국립광주박물관 새 문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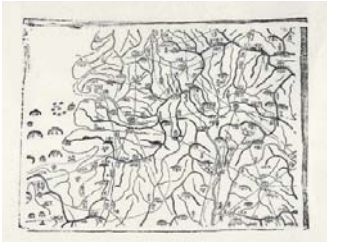
리노베이션 과정을 거친 국립광주박물관이 오는 9월 3일 새롭게 문을 연다. 이번 재개관에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시대 흐름에 따라 한 눈에 살필 수 있도록 주제별 전시실이 새롭게 탈바꿈한다. 재개관에 맞춰 새롭게 관람객들을 만나는 보물 등 대표 유물을 광주일보 지면에 미리 소개한다.

보물 제1581호 대동여지도 목판

역사실에 전시될 보물 제1581호로 지정된 '대동여지도 목판'은 고산자(古山子) 김정호가 철종 12년(1861) 만든 우리나라 지도이다. 이 목판은 판나무판의 앞뒷면에 조각을 하였으며, 일부 해안 도서지역은 목판면의 일부만 활용하고 그 여백에 다른 지역의 지도를 판각하였다. 이 유물은 광주와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대동여지도'는 우리나라를 남북 120리 간격으로 22층으로 구분하여 이를 상하로 연결하면 전국지도가 된다.



<대동여지도 목판>



<목판으로 찍은 인쇄본>

22첩의 지도는 동서 80리 간격으로 병풍처럼 접고 펼 수도 있도록 만들었다. 목판은 곡선, 도로는 직선으로 구분해 크기와 중요성에 따라 굵기를 달리하여 보기 편하게 하였다.

특히 도로에는 10리마다 점을 찍어 거리를 짐작할 수 있고 기호를 사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대동여지도는 중강진 부근이 북쪽으로, 울릉도가 남쪽으로 약간 치우친 것을

제외하면 오늘날 지도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확하다.

조선시대 유학자 유재건은 “김정호는 그림도 잘 그리고 조각 솜씨도 뛰어나 인쇄된 지도가 세상에 알렸는데, 상세하고 정밀한 것은 예나 지금에 비할 수 없다.”고 평했다.

<윤종균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관>

화폭에 남도 전통주를 담다

신세계갤러리, 대동문화와 함께 내달 1일까지 술 이야기전

광주신세계갤러리는 오는 9월1일까지 광주신세계백화점 개점 15주년을 맞아 '남도의 전통술, 스토리를 그리다'전을 연다. 흥취를 만드는 진도 등 남도의 전통주 생산지를 작가 25명이 답사한 후 제작한 작품 선보이는 이색 전시다.

지역 문화단체인 (사)대동문화재단과 함께 준비한 이번 전시에는 라규재·류재웅·박구환·박문중·박태후·송필용·서희화·윤남용·이강일·이민하·이이남·이정록·전현숙·정선휘·정운학·정희남·조근호·최미연씨 등 지역작가들이 참여한다.

또 방정아·안종연·최석운·김선두·김영삼·윤동천·이강희씨 등 타지역 작가들의 작품도



박태후 작 '자연으로 부터'

송필용씨는 푸른 물을 배경으로 한가하게 차려진 술상을 화폭에 담았고, 이정록씨는 술의 고유 색과 다양한 술잔을 결합시킨 이색 작품을 전시한다. 문의 062-360-163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호남인의 혼과 맥 '역사기행'

김세근 전남지방노동위 위원장 '호남정신-義의 길을 가다' 펴내

역사·인물기행 글을 주로 쓰고 있는 김세근(57·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사진)씨가 호남인의 혼과 맥을 담은 역사기행서 '호남정신의 뿌리를 찾아서-義의 길을 가다'를 펴냈다.

김씨는 호남인의 역사문화가 살아 있는 곳을 찾아 인물과 문화 유적을 소개하며 의(義)가 호남정신의魂魄(魂魄)임을 밝히고 있다.

책은 호남인물들을 역사책에서 만나고, 전라도 곳곳의 역사현장에서 이들을 다시 만나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풀어냈다.

김씨는 박상·조광조·양평손·최부·송순·최산·김인후·유희춘·양산보·기대승·박순·정철·임억령·이항 등 호남의 선비 30여 명과 그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화순 죽수서원, 담양 소재



원, 진도 벽파정, 정읍 보림사 등을 언급하며 호남의 정신에 대해 설명했다.

김씨는 “호남의 역사인물을 통해 오늘의 호남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고자 이 책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여수 출신으로 전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해 노동부 고용관리과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을 역임했으며 '유럽의 노사관계와 고용' '객관식 노동법' 등을 썼다. 광주일보 '테마칼럼' 필진으로 활동했으며 한국 수필가협회 회원이기도 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문학춘추작가회 가사문학 재해석

내일 담양서 세미나

문학동인 문학춘추작가회(회장 노남진)는 21일 담양 한국가사문학관 일대에서 손광은 시인과 문학평론가 이명재씨를 초청, '제2회 문학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문학세미나는 가사문학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지역문단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번 세미나에서 손광은 시인은

'시가문학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문학평론가 이명재씨는 '빛고을의 문단사적 위상과 과제'란 내용으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세미나 이후에는 포크가수 한보리씨를 초대한 미니콘서트도 함께한다.

또한 한국정자문화의 보고인 담양의 소재원과 식영정, 광주의 환벽당을 둘러보며 가사문학의 배경과 옛 선비들의 풍류문화를 되돌아 보는 시간도 준비됐다. 문의 062-226-181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Dinner Show 송대관

2010. 8. 20(금) 19:00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 홀

₩150,000 (부가세 별도)

문의: 062-227-9940 / 예약: 062-227-9940

주최: 광주광역시 / 후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문화재단, 광주광역시문화재단, 광주광역시문화재단, 광주광역시문화재단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이웃을 돕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더 나은 삶을 만듭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062-227-9940 / 순천점 061-752-9940 / 목포점 061-262-9200 / 송광점 062-227-9970 / 익산점 063-851-2422